

국가발전 기반 될 기초연구 이끈다

전북대학교 교수진,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67개 과제 선정 100억여원 연구비 지원

전북대학교 교수진들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공모한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공모에 모두 67개 과제가 선정돼 100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이공학 분야 풀뿌리가 되는 개인 기초 연구를 지원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해 국가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기초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국가 차원의 보호 학문을 지원하는 '보호연구', 지역 과학기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됐다

전북대는 이번 사업에서 기본연구 분야에 박완일 교수(물리교육과)가 '초기 우주의 물리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 과제로 4억8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해 모두 45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분야에서는 곽효성(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두개강내 동맥경화증의 고해상도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약물치료 반응 평가 기법 개발' 연구 과제를 통해 1억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해 모두 22개 과제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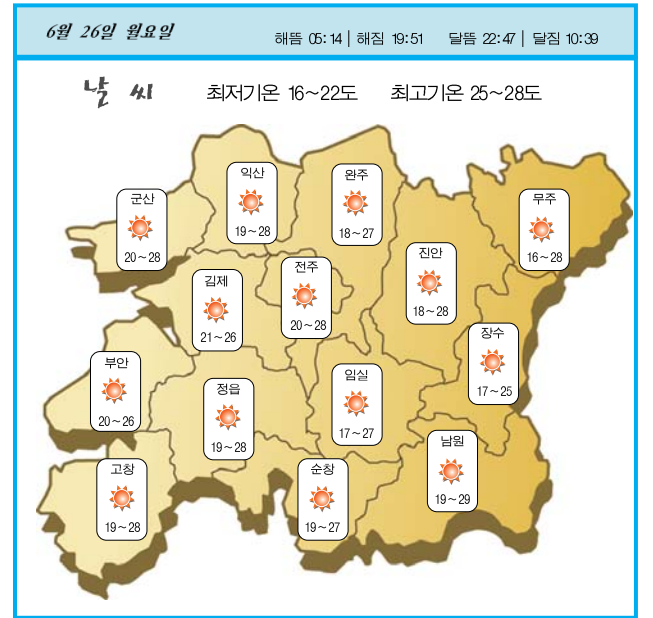


익산 컨벤션호텔 첫 삽 익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컨벤션호텔의 착공식이 23일 익산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현을 시장,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등이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이철로 산학협력단장은 "우리대학 연구진들이 이공학 분야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

학의 연구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 것"이라며 "대학의 연구진들이 보다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고3학년 수험생들 수시 지원전략

고3학년 수험생들은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한편 수시 지원전략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이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고3학년들은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기말고사를 치루는 데 집중하는 한편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시 지원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수시 전략을 세우기에는 원서 접수까지 시일이 너무 짧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분석과 6월 성적에 기반한 대학별 학생부

성적 산출, 수능 최저점수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함께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상위권은 고난도 문제에, 중위권은 실수 줄이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상위권은 고난도 변별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해 성적 향상을 노리는 것이 좋고 중위권은 쉽게 출제되는 문제들에서 실수를 줄이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설명.

또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은 물론 서류와 면접도 주요 전형요소인 만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배능을 수 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주부들, 수돗물 음용 활성화 '앞장'

맑은물사업본부, 가정주부 50명 대상 '전주얼수 사랑 주부 양성캠프' 운영 수돗물 음용 신뢰도 대한 설문조사·무료 수질 검사 신청방법 등 홍보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인 전주시 주부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3일 송천2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인 가정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전주얼수 사랑 주부 양성 캠프'를 운영했다.

전주얼수는 정정 1급수인 용담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용해 정수처리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전주시 수돗물 브랜드이다.

이번 전주얼수 사랑 주부 양성 캠프는 수돗물 사용에 민감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주부들이 직접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가정과 이웃에 소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음용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맑은물사업본부는 가정 주부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그간 잘못 알고 있었던 수돗물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는 참석한 주부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전주시 수돗물에는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어, 먹는샘물 등을 마실때보다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다며, CO2 배출을 저감시키는 등 친환경 생활도 실천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수돗물 음용과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하

는 가정방문 무료 수질 검사 신청방법 및 홍보 활동도 펼쳤으며, 참석한 주부들에게 수돗물 전용 전주얼수 에코 물병을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시는 올해 전주얼수 사랑 주부 양성 캠프를 송천2동과 효자동, 인후동, 금암동 등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방문 캠프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돗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수돗물의 음용을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상가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상가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시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이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기자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작 선정

전주시민들의 삶이 담긴 자료·전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기록물 수집에 열심되고 있는 전주의 기록유산들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전주시는 제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마감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건, 약 400여점의 민간기록물이 접수됐으며, 23일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대상(꽃심상) 1명, 최우수(대동상) 1명, 우수(풍류상) 2명, 장려(울금음상) 15명, 입선(창신상) 2명 등 총 42명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결과 1928년 전주향교포상, 1920년대 전주최씨 족보, 1940년~50년대 전주사범학교 졸업앨범 의 초

중고 봉신표 및 상장 등 1920년~60년대 전주 옛사진을 기증한 전주향친회 최봉섭 회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주와 관련된 중요 민간 기록물을 수집·보존·활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인문학적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정신'의숲 설립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전주기록문화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재용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다니다
변화된 모습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